

# 격동의 현대사 정론직필 65년...광주일보 100년을 향합니다

## 65년 걸어온 길

호남 최초 2015년 지령 2만호 발행 한국 현대사 족적 남긴 기획물 다양 지역사랑·문화사랑 지역민과 함께 남도학숙 건립 등 공익 캠페인도

광주일보 창사 65주년은 호남의 역사 그 자체다. 대한민국과 호남이 헤쳐 온 6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광주일보는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정론을 편다'는 가치로 6·25 전쟁과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88올림픽, IMF 외환위기, 한·일 월드컵, 노무현 대통령 서거, 세월호 침몰 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격동의 현대사 속에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 ● 지역민과 함께--65년

광주일보 뿌리가 되는 옛 전남일보는 민족 상잔의 전쟁 와중인 1952년 2월 11일 타블로이드판 2개 면 첫 호를 창간호로 발행했다. 이날 신문은 '판문점협상'을 1면 머릿기사로 2000여부를 인쇄, 광주 지역과 지역에 배포했다.

다른 뿌리인 옛 전남매일신문은 4·19 직후인 1960년 9월 26일 탄생했고 두 신문은 1980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조치에 따라 '광주일보'라는 제호로 다시 창간됐다.

광주일보는 지난 2015년 5월 28일 지령(紙齡) 2만호를 발행했다. 지령은 창간이후 발행한 신문의 호수(號數)로, 2만 번째 신문을 발행했다는 의미다. 광주일보의 지령 2만호 발행은 호남지역 최초이자 전국 일간지 가운데 12번째 기록으로, 전신인 전남일보 창간호 발행 이후 63년 3개월 17일만에 대기록을 달성했다.

광주일보가 창간일을 4월 20일로 잡은 것은 전신인 옛 전남일보의 법인설립 등기일(4월 20일)에서 비롯됐다. 광주일보의 3대 사시(社是)는 ▲불편부당의 정론을 편다 ▲문화창달의 선봉에 선다 ▲지역개발의 기수가 된다는, 호남 대표지로 지역민을 대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1960년 4·19 혁명의 시발점이 된 마산상고 학생 사랑과 마산 시위 사건 보도를 비롯, 광주·전남 4·19 혁명 소식을 다루며 시민정신을 일깨웠고 언론 압축기인 유신 시대, 1974년 10월 25일 긴급조치 1호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기자 41명이 언론자유 실천을 결의하는 등 정론직필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지난 1980년 5·18 민중항쟁 때는 10일 동안 신문 발행이 중단되는 등 언론 기능이 마비되기도 했지만 같은 해 6월 2일 '아, 광주여'(옛 전남매일), '무등산은 알고 있다'(옛 전남일보) 등 제목의 기사로 피맺힌 절규를 대변했다.

대한민국을 슬픔에 휩싸이게 한 세월호 침몰 참사 현장에서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전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광장을 찾아 촛불을 들었던 지역민들의 바람을 지면에 반영했다.



1975년 열린 제 20회 호남예술제 개막식



광주일보 전신인 옛 전남일보 창간호



1980년 통폐합된 광주일보 창간호

# 光州日報 65년



문화예술전문 매거진 '예향'

### ● 공익캠페인·기획물...지역사회 변화 이끌어

광주일보는 현대사를 바로 세우고 시대변화에 한 발짝 앞서나가는 기획물과 캠페인 등으로 사회 공기(公器)로서의 소임과 책임을 다하는데 힘써왔다.

지상(紙上)에서만 지역민 참여를 호소하는 캠페인이 아닌, '행동하는 캠페인'을 벌여 지역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한 몫을 해왔다.

광주일보가 지난 1960년 4월 23일부터 광주에서의 4·19 전개과정과 뒷얘기들을 기록한 '광주학생 4·19 발자취'라는 기획물은 현대사 현장에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기록이었다. 광주일보는 아울러 4·19 희생자·유가족 돕기 운동과 기념사업 캠페인을 전개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회관 건립운동도 추진, 지난 1967년 11월 3일 준공하는데 큰 역할을 맡았다. 광주일보는 또 1975년부터 무등산 가꾸기 운동에 나서 '도립공원 1번지 무등산 정원화를 위한 범시민 캠페인', '무등산 나무심기 캠페인', '무등산은 살리자', '무등산 정상 개방' 캠페인 등을 전개하며 무등산 보호 활동을 펼쳐왔다.

광주전남 인재육성의 요람인 남도학숙도 1988년 '사람을 키우자'는 기획물과 1989년 남도학숙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남도학숙 건립 여론이 높다'는 보도를 통해 건립에 힘을 실었다.

지난 1973년 9월 1일부터 1975년 8월 15일까지 2년 간 553회에 걸친 연재물인 '광복 30년'과 1975년 12월 1일부터 1977년 7월 21일까지 439회에 걸쳐 연

재한 역사기획물 '義兵列傳(의병열전)'은 한국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연재물 등으로 평가받고 있다.

'5·18-9년'은 1989년 1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총 47회를 게재하며 5·18 진상 규명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일보는 또 '5·18 국립묘지에 민주나무를 심자'는 보도를 계기로 5·18 묘지를 국민 성금으로 모아 조성하자는 '헌수'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지역 발전 기수(旗手)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했다. 언론 통폐합 조치 이후의 첫 기획연재물인 '樂山江을 살리자(45회)'는 제 5공화국 들어 심리적 절망에 빠진 지역민들을 위해, 영산강 개발을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농업혁명(1992년·35회),바다경영시대(1995년·31회), 전남쌀을 한국대표 브랜드로(2004년·50회) 등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연재물을 게재하는 한편, '은누리안 리포트-국제결혼 다문화가정', '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외국인 노동자의 삶과 꿈', '함께 열어요 우리의 미래 - 다문화가정 2세들의 꿈·희망 대안찾기' 등 사회 흐름을 주도하는 다문화사회 기획물을 연재하기도 했다. 올해는 '함께 걸어요 통일의 길'이라는 주제로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참사와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낸 촛불시위 현장을 지키며 관련 기획물도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다문화원류...'·'천년가람' 등 수준높은 연재물 62년 맞은 호남예술제 문화인재 양성 요람으로

### 지역 문화 창달 이끈 65년

광주일보는 '남도창'(南道唱·1973년·26회), '천년가람(千年伽藍·1987년·140회)', '아시아 문화원류를 찾아서'(2012년~) 등의 기획물로 광주·전남 문화·예술의 가치를 조명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남도창'(南道唱·1973년·26회)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문화적 가치가 확립되지 못했던 남도 판소리를 정리해 학계·예술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연재물.

1987년부터 4년간 140회를 주간 연재한 광주일보 사상 최초의 전문 종교물인 '천년가람(千年伽藍)'은 500여 전남 사찰 대부분을 역사적·학문적·문화재적으로 정리하는 등 우리 불교의 모든 것을 풀어내는 데 공을 들인 역작이다.

'아시아 문화원류를 찾아서'는 지난 2012년 4월 19일부터 중앙아시아·인도·중원·인도차이나 등 9개국을 도는 대장정으로 지역민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기획물이다.

도서관과 미술관 등 문화 공간을 마련하는 한

편, 예술·체육 영재 발굴과 지원 사업도 주도했다. 광주일보가 진행하는 '호남예술제'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역사로 평가받는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 자리잡았다.

올해로 62회를 맞는 호남예술제는 예술인들을 키워낸 텃밭으로, 5·16, 5·18 등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단 없이 예향의 맥을 이어가는 향토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특별한 문화 행사가 적었던 1970년대만 해도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문화 축제로, 15회(1970년) 호남예술제 개막식에는 무려 10만명의 인파가 광주공설운동장에 모여들 정도였다.

창사 61주년을 맞아 지난 2013년, 11년 만에 재창간된 '예향'은 33년 역사를 헤아리는 고품격 문화예술잡지로, 21세기 문화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콘텐츠와 수준 높은 문화담론을 펼치며 세대와 지역을 초월해 사랑받는 매거진으로 자리매김했다.

3·1절 전국마라톤대회 등 전국적인 체육 행사를 통한 지역 인재 육성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